발전노동자

키우자, 전력산업 공공성 / 만들자, 좋은 일자리

270호 2019.11.21 (발행인: 박태환)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천막농성 43일차 / 피켓 시위 67일차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는 발전공기업협력본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에 외부전문가 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태

발전노조와 발전회사(남동/동서/서부), 기업노조(남동/동서/서부)가 참여하는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추천 받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공기업협력본부는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으로 외부전문가위원이 갖춰지게 되면,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폭염을 걱정하던 8월에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투쟁을 시작해서, 찬바람 부는 겨울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 빨리 해고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투쟁에 함께 하자.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무비 착복 중단!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천막농성 11일차

발전 비정규직 동지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무비 착복 중단!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오늘(11/21)로서 11일째이다. 추운날씨에도 연일 현장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투쟁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발전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동지애로 함께 하자. 단결! 투쟁!

서부노조가 고 김용균 노동자 투쟁 관련 "서부발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전노조 3명과 공공운수노조 1명에 대해 행한 고소·고발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정

서부노조는 '회사의 가려운 곳 긁어주는 행동' 말고, 진정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며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 만드는데 앞장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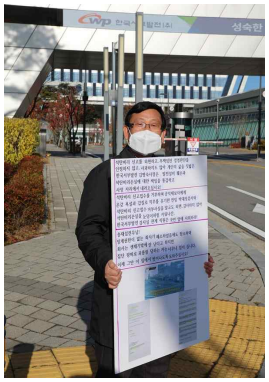
작년 12월 태안발전본부 운탄설비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적 이슈가 됐고 온 언론을 뒤덮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노동안전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 22개의 권고안을 냈다.

서부노조는 고 김용균 노동자 투쟁이 특조위 구성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올해 2월 장례를 치르고 나자 4월부터 발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기 시작했다. 4월 당시 발전노조 대협실장이던 이태성과 서부발전본부장 유승현 고소·고발, 5월 공공운수노조 진상규명팀장 조성애 고소·고발, 6월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장 이재백 고소·고발. 이유는 그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서부발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부노조는 소식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서부노조가 고소·고발한 4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의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서부발전의 명예를 들먹이며 고소·고발을 남발한 서부노조. 아무리 조합원의 명예 운운하며 포장을 하려해도 서부노조의 그 행동은 회사의 가려운 곳 긁어주는 행동대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부노조는 고 김용균 노동자 투쟁 후속조치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발전노조는 공익제보자 태안화력 김하순 계약부장을 지지합니다.



▲공익제보자 1인시위 모습
- 출처 : 오마이뉴스

11/14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산 저열량 석탄 수입으로 인한 비리를 공익 제보했으나, 오히려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태안화력 김하순 계약부장이 14일부터 서부발전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부장은 감봉3개월에 대해 부당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이 김 부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승소했으나 서부발전은 2심 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하순 부장은 "석탄비리 신고를 외면하고 무책임한 경영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 개인의 삶을 짓밟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발전설비 훼손과 석탄비리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장자리에서 내려 오십시요"라고 주장했다.